

도서명 예술, 역사를 만든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고대 이집트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딕-로마네스크-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와 계몽주의-낭만주의 등의 예술이 흐르는 과정이 역사와 맥여 잘 설명되어있기 때문이다.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김진서 - 구절: 예술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접하게 되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뇌와 슬픔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술은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유: 진짜로 나도 예술작품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제일 공감이 되었다

박예진 - 구절: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부패한다면 계속 살아 있는 영혼을 자신의 길로 잃어버리게 된다.

- 이유: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게 미라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이 외에도 미라를 만드는 과정과 스카라베라는 풍뎡이 모양의 부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더 인상에 깊게 남았다.

최다민 - 구절: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비밀리에 심어놓았다는 모차르트의 눈부신 걸작이 다름아닌 고대이집트를 무대로 했다는 사실 또한 의미심장하다.

- 이유: 모차르트와 이집트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 더이 없는데 이 책을 계기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겁고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김혜원 - 구절: 대중은 마네를 외면했지만 졸라와 보들레르 등 동시대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마네를 열렬히 찬양했다.

- 이유: 시대의 상황에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자신만의 호가취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진정한 예술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같은 화가들이 인정해준게 인상깊었다.

김진서 : 없음

백예전 - 국절 : 대중에게,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도 알린 이집트를 희생된 자본인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훗날 나폴레옹 세가 되는 프랑스의 전쟁영웅이다  
이유 : 프랑스로 인해 이집트의 예술성이 재발견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는 프랑스의 침공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국절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전에 이집트가 로마의 통치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집트에 대해 관심을 주기 힘들었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프랑스가 행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병인양요' 때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한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이집트의 사람들끼리도 이집트를 희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다민 - 국절 :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의식적으로 희생시킨 고대 로마 스타일과 맞아떨어지는 것 이었다.  
이유 : 나폴레옹이 스스로 로마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으며 고대 로마 스타일이 연상되었다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한다. 유럽을 돌고 도는데 그저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혜원 - 국절 : 인상주의 그림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흐릿기 때문에 마치 미완성처럼 보이며, 그림 속에서 검은색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유 : 흐릿해 보이더라도 색채가 잘 어우러져 있어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의 그림을 보면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아예 맞지 않는다.

김진서: 시대 상황에 따른 각각 여러 나라들의 전쟁이나 정치적인 갈등, 계급사회, 그 나라의 시대적 분위기 등이 예술작품을 통해 잘 나와있어서 유익하고 재밌었다

박예진: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집트의 유물과 그 예술성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의 예술에 대해서 한 바퀴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최다민: 각자의 역사적 인물이나 작품들을 개별적으로만 알려주는 책을 잘 알았는데 완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과 인물이 연결되어 있고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김혜원: ~~불 화가의 인생을 정리해놓아서~~

어느 화가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마네의 가리관에 대해 강명을 받았고 내 즐거웠지 되었다

김진서: 나는 역사 관련된 것을 지루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책을 통해 예술과 역사를 엮어서 이렇게 잘 풀어놓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박미진: 평소 예술과 관련된 역사책을 읽으면 근세상스 시대와 관련된 내용만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책들은 또 다른 역사에 대해 알려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는 예술과 관련된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다.

최다민: 이런 내용이 책들을 더 늘려서 읽고 싶어졌다.

김혜원: 나도 미니멀리즘 딱딱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미니멀리즘을 좋아하고~~ 대중들에게 외면 받더라도 같은 화가에게  
인정을 받는 화가가 되어야겠다. ~~대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외면 받더라도~~

책이 길어서 아이들이 읽기 힘들어하는가봐 걱정했는데 다들 반응이 좋아서 바쁘게 읽고  
내가 고른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